'유치원생 혼수상태' 엇갈린 판결

1심 재판부 "유치원 폐쇄 공익적 이익 크다"
항소심 재판부 "원장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찜통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의견과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 광산구 S유치원 원장 박모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유치원 폐쇄명령은 부당하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고의로 유치원생을 찜통 통학버스에 방치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원장인 박씨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는 데 판결의 방점을 뒀다.

시설폐쇄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생들이 전학할 경우 정서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봤다.

무단 학급 증설이나 유치원운영위원회 부적절 운영, 교원처우개선비 부정 수령 등의 위법사항도 시정 또는 명령으로 개선할 수 있어 시설폐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결정했다.

반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지난해 8월 S유치원이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한 점이 많고 중대한 과실(유치원생 혼수상태)이 있어 폐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유치원생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은 원장인 박씨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또 유치원 운영의 위법행위가 전 과정에 걸쳐 있어 이번 사고가 발생했고 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설폐쇄에 따른 공익적 이익이 박씨의 사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1심과 정반대 판단을 한 항소심의 판결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 분분하다.

위법한 사안에 따라 엄격한 법리적 해석을 하고 비례원칙을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유치원생이 2년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감안하면 항소심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원장에게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시설폐쇄를 처분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환영할 일이다"며 "법리적 해석에 치우쳐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1심은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정의의 관점에서 법적 합목적성에 무게를 뒀고, 항소심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리적 해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안정성이 없는 처벌의 필요성은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고, 반대로 법적 안정성만 강조하다보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석에만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 사법부의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보여준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리적 해석을 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29일 S유치원에 다니던 A(4)군이 유치원버스를 타고 등원했다가 폭염 속에 8시간 가량 버스 안에 방치돼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원장 박씨는 광주시교육청이 시설 폐쇄명령과 자신에 대한 중징계(해임·파면) 처분을 요구하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원장 박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유치원 운영은 가능해졌다.

조인호 기자

부두에 묶인 배 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배 전복 사건과 을씨년스러운 장마의 날씨 때문에 군산 비응항의 부두가 출항하지 못한 배들로 가득 차 있다.

광주디자인센터노조 "원장이 직원간 갈등 유발해 노조탄압"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디자인센터지회는 9일 "디자인센터 원장이 직원간 갈등을 유발해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디자인센터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모 원장은 지난 5일 '인사권 남용'에 대해 언론보도가 이뤄지자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노 갈등을 통해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이며 디자인센터 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입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박 원장의 직원 탄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박 원장은 경영정책팀장을 통해 '직원들 연·병가는 1주일 전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박 원장은 직원들이 신청한 연가, 특별휴가, 출장 등에 대한 결재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박 원장 취임 이후 인사 발령은 25차례나 이뤄졌다"며 "지난 2일에는 팀장 A씨를 팀원(파트장)으로 끌어 내리는가 하면 3~4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팀장으로 올렸다가 팀원으로 내리기를 되풀이 하고, 일부 직원은 이틀만에 파견 뒤 복귀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제출된 경위서가 50여건에 이르고 한 직원은 5차례나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박 원장은 이같은 행태로 이미 디자인센터 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박 원장은 사퇴하고 광주시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 노조는 지난달 22일 광주시에 원장 해임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서은홍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5

고흥 해상서 어선·낚싯배 충돌 1명 사망

9일 오전 6시 26분께 고흥군 도양읍 한 마을 앞바다에서 1t 미만 소형어선과 9.77t급 낚싯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형 어선(0.64t)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A(79)씨와 부인 B(74·여) 씨가 물에 빠졌다.

이들은 낚싯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했던 B씨는 순천의 한 병원에서 오전 9시께 숨졌다.

한편 낚싯배에는 선장·선원과 승객 16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낚싯배 선장 김 모(61) 씨의 음주 여부 확인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어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낚싯배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두 선장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여학생들 상습 추행 광주 모 고교 교장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모 고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사 4명을 같은 혐의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장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31일 직위해제된 A 교장은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학교 교사 4명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장은 '명함을 바로 잡아준다'는 명목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출동 경찰관 폭행 폭력조직원 2명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양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3시2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친 혐의다.

조사 결과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이들은 식당에서 서로 다툼을 벌였으며, 경찰관이 제포를 시도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생 협박 주유소 종업원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모형 권총을 든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주유소 종업원 A(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 조수석 뒤에 탄 초등학생 1학년 B(7)군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바이벌용 모형 총을 들고 있던 B군이 주유소에서 키우는 개를 비비탄으로 쏜 것으로 보고 B군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다가 울음을 터뜨린 B군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이 실제 총을 겨누고 있는 CCTV 장면과 '탕하는 소리가 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폭력배 사칭 술값 내지 않은 30대 구속

대전중부경찰서는 9일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동네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A(36)씨를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3시 39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음식점에서 맥주 3병을 마신 뒤 업주에게 "내가 ○○파 조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팔뚝의 흉터를 보여주며 돈을 내지 않는 등 총 8회에 걸쳐 4만6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